

민주, 외부 영입 하나 안하나

계파별 '밥그릇 싸움' 혈안...외부인사 영입 변죽만

김장수 前 국방장관도 한나라당에 빼앗겨 '곤혹'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한나라당 입당 충격이 통합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김 전 장관의 한나라당 행에 대한 비난보다는 통합민주당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더 높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엄치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속내로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는 뭘 하고 있는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손 대표는 대표직 취임 일성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만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이번 한나라당 행(行)은 민주당이 처한 인몰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반박적인 평가다.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들은 통합민주당의 영입제의를 한사코 거절하고, 내부 유능한 자원들이 오히려 속속 이탈해 나가는 실상가슴의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일부 외부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변죽만 울

리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공수표를 그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17일부터 비례대표 후보 신청이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외부 인사들의 이름은 오간데 없고 기존에 당 주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이름만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 지도부와 고위 당직자들은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최소 14명까지는 사실상 당선 안정권인데도 실적이 지조한 것은 당 지도부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통합민주당의 지도부와 각 계파가 자와 인몰들만 심는데 혈안이 돼 외부인사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제 밥그릇 쟁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구 민주계와 대통합신당계가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외부인사 영입난은 최근 수도권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이 낮아지면서 '도로 열린우리당'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맞물려 당 체인의 효과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kwangju.co.kr

4·9 총선 현장

박지원 "당 최종 발표후 거취 결정"



○박지원 통합민주당 목포 예비후보는 16일 무소속 출마 여부와 관련 "당에 제심을 청구해 놓은 만큼 (공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당의 최종 발표를 듣고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박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최종 공천 후보는 당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며, (당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첨단 보훈병원 일대 나무심기 참석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16일 첨단정년회·로타리클럽 회원 등 100여명과 함께 보훈병원 일대 강변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는 등 민심잡기 행보에 주력.

이 후보는 이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도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연학습원·식물원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강변로 가꾸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나눔의 쉼터' 찾아 급식 봉사활동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6일 급식 봉사활동을 벌이고 재래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표심잡기에 주력.

강 후보는 이날 월산5동 나눔의 쉼터를 찾아 자장면 배식 활동을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영세 상인들을 잇따라 만나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심잡기기에 총력.

박금자씨 등 전·현직 지방의원 '김영진 지지'



○박금자 전 광주시의원·송용욱 서구의원 등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16일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지지 입장을 발표.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는 농림부장관과 4선 의원을 지내면서 구축한 경험, 검증된 경륜을 중산층과 서민 발전에 쓸 아부를 인물"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

나중천 시의원 등 19명 "지병문 지지"



○나중천·이명자 광주시의원 등 19명은 지난 14일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 지지를 선언.

이들은 "지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준치시키는데 노력하는 등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량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조영택 "인맥 얽매이는 구태정치 사라져야"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6일 공천자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한때 연기된 것과 관련, "계파 정치에 매달려 시민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락공전을 노린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

조 후보는 이날 "일부 정치인이 특정 정치 인맥에 얽매이는 등 구태 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을 우롱하고 개혁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성토.

장흥호·신현구 예비후보 "김영룡 지지"



○장흥호·신현구 예비후보는 16일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김 후보는 재정부 세제실장,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제 전문가로, 그동안 쌓은 국정 경험과 인맥·능력을 바탕으로 광주와 서구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박주선 "구도심 재개발 사업 지속 추진"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6일 구도심인 계림동과 산수동, 동명동, 학동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지역을 재개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용산동 미개발지역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광주향정 계승 다양한 정책 개발"



○김재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6일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을 찾아 5·18 기념행사의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김 후보는 이날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하면서도 5월 정신을 담지 못한 채 대중 문화컨텐츠의 하나로 인식, 상품화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광주향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 계승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

강기정, 노령연금법 제정 공로 '효자상' 수상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5일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법률 제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북구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회장단으로부터 '효자상'을 수상.

강 의원은 이날 인사실에서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

유종필 "도덕성 없는 후보는 사퇴해야"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6일 "강력한 야망"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유 후보는 이날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로는 새 정부를 견제할 수 없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제 세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성과 중앙 무대에서 통하는 정치력을 갖춘 후보가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

김태욱 "계림동 지구, 문화복합단지 지정"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6일 계림동 주민들과 만나 "계림동 재개발 지구를 '문화복합단지'로 지정, 광주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

김 후보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지역은 물론 새로 추진 예정인 지역도 서울의 은평뉴타운 지역처럼 초고층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

이병화 "불·탈법 의혹 후보자 공천 배제해야"



○이병화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6일 통합민주당의 서구를 지역 여론조사 경선 실시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있고 있는 후보자를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라"고 촉구.

이 후보는 이날 "통합민주당의 여론조사 경선 후보자 발표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개혁 공천'과 거리가 멀고 지역민의 뜻과도 다르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특정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조사중인 상황을 감안, 후보자들에 대한 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공천 심사 불공정..." 재심의 촉구



○김영록 통합민주당 해남·완도·진도군 예비후보는 16일 "공천 심사가 소지역주의를 야기하고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

김 후보는 이날 "뒤늦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말에, 전화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인신의 등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

강경수, 한나라당 '광주 광산'을 출사표



○강경수 한나라당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오는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

강 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통해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작지만 큰 정치'를 펼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뒤 지역민을 상대로 표심잡기를 본격화할 예정.

/홍행기기자 redplane@/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출근길 유세는 10초 안에 끝내라'

민주당 총선 전략 가이드

'출근길 유세는 10초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라. 낱이 쓰는 돈이 내 발목을 잡는다. 자칭 선거전문가는 100% 독이다. 발로 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TV토론회와 온라인 캠페인은 기본만 해라. 엠프·스피커·마이크는 최고급을 써라'

통합민주당이 최근 작성한 선거지침서의 한 대목이다. 당 조직위원회가 공천자들을 위해 내놓은 '총선 승리의 길'이라는 선거 가이드북은 선거운동 준비 기간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 투표일에 이르기까지의 ▲후보자 수칙 ▲선거 전략 수립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 조직 기획 및 활동 요령 ▲선거운동 기간 일일 계획표 및 전화·인터넷 홍보 요령 ▲공약개발 및 이슈선점 방법 등을 담았다. 일종의 '선거법'인 셈이다.

조직위는 우선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논리 ▲아파트에 거주하면 보수적, 일반주택이라면 진보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등 유권자의 출신지

역별, 계층적·주거형태별 환경 ▲인물 경쟁력 ▲구도 ▲지역현안 등 5가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직위는 후보자 및 배우자 활동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생각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상대방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다양한 칭찬 문구를 곁들일 것이며 회식 자리에서는 양지 말고 인사를 하라는 행동 요령을 제시했고 후보 부인에게는 검소와 성실을 주문했다.

특히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이상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선거에서 후보 건강 관리 요령도 조언했다. 예컨대 상대 자극을 피하려면 턱을 목 쪽으로 당겨 연설을 하고 목 캔디는 피하고 살구씨 기름(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애용했던 방법)·오미자차·날계란 등 성대보호식품을 복용할 것. 틈틈이 손을 쥐었다 폈다하는 '짬짬'과 박수 20~30번 치기, 잡자기 전 200회 이상 발끝 부딪히기 등을 통한 목·손·발 관리 비법을 소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등산, 낚시, 레저 활동의 필수품!!

SONY FM/AM 라디오(정품)

녹취용, 학습용 고성능 IC레코더

MP3 파일 재생용 데이터 저장가능한 IC레코더

▶ICD-UX 시리즈◀

- ICD-UX 80 (가격 58,000원)
- ICD-UX 70 (가격 29,000원)

또렷한음질

W19,000원

092-522-2000

시세성 전 통 제레 음식 보요

시세성 제세성을 확대합니다.

프사공관항토관과

- 소키우릴 190,000원 (27종)
- 프사공관항토관 230,000원 (31종)
- 프사공관항토관 330,000원 (35종)
- 대가독 치세성 400,000원 (38종)부터

092-522-2000